

#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6,000년 전부터 키워왔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은 빛이라고 했던 거죠? 이 세상 만물이 다 빛이었으나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서부터 이제그대로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라는 증거들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제그대로 지구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죠? 별에도 있고 달도 있는 거죠? 지구가 이제그대로 완전히 불덩어리였었으나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흙과 돌과 바닷물로써 완전히 에워싸여 있는 거죠? 미국 나사 같은 데서는 우주인이 있다, 우주인이 지구에도 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우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생명체는 지구 땅에만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없는 거죠? 달이나 별나라에는 나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세상 새대거리와 같은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이제그대로 이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은 온 우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6000년 이전에 온 우주가 빛이었던 거죠? 온 우주가 빛이 있었다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고로 그런고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점령하여 영원원원 전서부터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사셨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은 이제그대로 사람과 같이 조그만 몸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켰던 거죠? 온 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었으나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을

포로로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그대로 온 우주가 빛을 잃어 버린 거죠? 빛이 되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 삼위일체로 회복되는 데에는 6,000년이 소요된다

온 우주를 꼭 차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그대로 점령하고 있었으나 마귀에게 점령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마귀의 세상으로 바뀌어 진거죠? 마귀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서 죽음의 세상으로 바뀌어 진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옛 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고로 옛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하루가 천 년과 같다는 말씀을 한 다음 여호와와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하신 고로 이제그대로 짝을 맞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데 6000년이 필요로 하고 하늘나라를 회복할 주인공이 되는 구세주가 6000년 후에야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이제그대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6000년 후에 구세주가 나와서 하늘나라를 회복시키는 고로 하늘나라가 회복되면 마귀의 세상이 없어지는 고로 말세가 되는 거죠? 마귀세상이 끝나려면 마귀를 모조리 전멸시켜야 되는 고로 마귀를 전멸할 자가 이제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 이 사람이 말씀을 했지만 이 사람이 말실 안에서 성경에서 논한 아마케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인고로 승리자가 됐다고 그랬죠? 이제그대로 붉은 용 마귀 대장과 싸워서 마귀 대장을 여지없이 이겨가지고 마귀대장을 완전히 죽이고서야 비로소 완성의 이긴자가 된 것이죠? 마귀대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마귀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고 있는 것이올시다. 말씀이 좀 험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인간의 말로는 그렇게 밖에 표현 할 수가 없는



구세주 호희성님

고로 마귀대장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쫓겨나서 모조리 죽어야만 모든 마귀에게 포로 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귀에게 포로 된 사람들을 전부 석방시키려면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마귀를 모조리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의인 300명만 있으면 이제그대로 온 우주를 뒤집어엎는다고 그랬죠? 300명의 의인만 만들어지면 300명의 의인이 계속해서 의인을 낳는 고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시 점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점령을 하게 되면 성경 가운데에 그 세계는 해와 달이 없어도 밝다는 말이 쓰여 있죠? 의인 자체가 빛인 고로 빛이 되는 의인들이 이제그대로 무량대수 숫자로 불어나는 고로 온 우주가 환해지는 거죠? 온 우주가 환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 여러분들은 구세주 하나님이 될 후보자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느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될 후보자들이죠? 하나님이 될 후보자들 인고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죠? 이제그대로 전도를 해서 순간에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6000년 전서부터 이제그대로 하나님께서 키워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경 할 수 있는 피로 키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죠?

이 세상에 숙명이라는 말이 있고 운명이라는 말이 있고 팔자라는 말이 있죠? 일부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미신이라고 하고 다 허튼 수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운명이다, 숙명이다, 팔자다 하는 소리가 과학적인 말이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팔자는 이렇고 이래 라고 미치광이가 말한다 해서 그게 맞을까? 맞는 말이 아니죠? 이제그대로 아무나 팔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우주의 주인공이나 쓰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올 팔자인고로 승리제단에 왔죠? 저 일본 만데서 오신 교회장님도 승리제단 올 팔자인고로 왔죠? 여기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까?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리죠? 그런데 그 기차가 우측으로 가고 싶다고 레일을 탈선해 가지고 달릴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운명의 팔자의 레일을 타고 여기까지 온 고로 마음대로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고 영생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되어질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키워왔다

여러분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승리제단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분명히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6000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조상대로 핏줄을 키우고 키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승리제단에 오게 해 가지고, 이제그대로 승리제단 가면 승리제단에 구세주가 있는 고로 구세주를 따라서 영생의 레일을 타고 영생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운명이라고 말 할 수 있고 팔자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를 키우고 키워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후보자들인고로 성령으로 거듭날 후보자들이 승리제단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지 아무나 지옥 갈 사람이 승리제단에 올 수 있는 까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승리제단에 올 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고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 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제그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지옥을 갈 팔자인고로 안 오는 것이올시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승리제단에 왔죠? 저 일본 만데서 오신 교회장님도 승리제단 올 팔자인고로 왔죠? 여기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까?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리죠? 그런데 그 기차가 우측으로 가고 싶다고 레일을 탈선해 가지고 달릴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운명의 팔자의 레일을 타고 여기까지 온 고로 마음대로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고 영생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되어질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회복하는 역사지, 이거는 사람만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온 우주를 회복하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가나긴 세월을 통하여, 가나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그대로 하나님께서 힘쓰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인고로 하나님의 예정 아래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왔다가도 떨어지게 떨어지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었던 사람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게 돼 있었어요 아

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나 나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싫어도 가야돼. 별 수 없어. 아시겠어요?

##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달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86년도에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왔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하러다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으로 도망 간 거예요. 미국에 한 달 동안 가서 무슨 볼 일이 있겠어. 한 달 동안 볼 일이 있어요? 86년도에 미국에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한 달이나 거기서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얘기 하는데 사실은 도망 간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왜 도망갔느냐 하면 너무나 너무 힘겹고, 너무나 너무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짝이 없고 가는 짐이 너무나 너무 힘겨운 고로 도망을 간 거예요. 초창기부터 이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매일이면 매일과 같이 피를 토하고 피를 토하다가 의식을 잃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곤 하는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죠? 피를 토하다가 의식을 잃을 정도면 그것이 쉬운 일이야? 매일 같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힘든 거죠?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상에 올라오는 것이 마치 이제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웠고, 단상에 올라 오다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면 온몸에 천 근 만 근이 돼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시커먼 피를 토하다가 이제그대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목욕을 하고 다시 나오는 이와 같은 생활을 매일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신을 모셨지마는 인간이죠? 인간인고로 이제그대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고로 81년도서부터 이제그대로 만 10년간을 이와 같은 생활을 거듭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겨운 거죠?\*

1991년 11월 5일 설교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12) 이스라엘의 장자 단이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중시하다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엄청난 재산을 그의 두 아들이 되는 79세의 므낫세와 76세의 에브라임보다도 더 많이 단 형에게 상속하였습니다. 단은 요셉보다 세 살 연상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였으며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임종한 후 27년을 더 살다가 140세에 애굽의 고센 땅에 묻혔습니다.

단은 42세에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무려 백 년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형제들의 자녀 교육을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어머니 라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은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기는 영성(靈性)을 기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기 시작할 때

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어린이들은 어머니 무릎에 안겨 잠이 들기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노아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고모라 성(城)과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하여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지낼 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조들의 예언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장례식을 치른 그해에 단은 113세였습니다.<sup>1</sup> 이제 단은 이스라엘 12

1 참고로 레위는 요셉보다 8년 전에 107세로 임종하였습니다. 성경에 레위

부족의 제일 연장자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단에게 나타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단아, 내 말을 명심하고 준행하라.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과 이삭에게 행한 일과 야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는 자는 너밖에 없느니라. 네가 죽기 전에 너희 조상에게 행한 나 여호와와 일을 애굽의 문자로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야 하느니라. 단이 구술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받아 적을 것이니라. 므낫세는 가나안 말을 아비 요셉에게서 일찍이 배워서 알고 있으며 애굽의 문자에도 능통하느니라.”<sup>2</sup>



단이 구술하고 므낫세가 받아 적음

라. 이스라엘의 십이 부족의 족장은 애굽의 문자로 기록된 나 여호와와 행한 일을 읽고 그들의 족속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 여호와와 행한 일을 듣게 될 것이니라.”<sup>2</sup>

2 성경 창세기서는 이스라엘의 장자 단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애굽의 파피루스에 기록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창

### 《4장 요셉》

## (12) 이스라엘의 장자 단이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중시하다

세기서는 단이 구술하는 것을 므낫세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성직자들은 파피루스에 구두점(句讀點)이 없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쓰기의 신관서체(神官書體)로 주로 종교적, 제의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mtt:id=56428>> 인용). 파피루스에 기록된 창세기서는 애굽의 언어(聖用文字 hieratic ; writing of gods)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아리에 보관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대대로 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유대족속의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자, 본래 단이 애굽의 언어로 기록한 창세기서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미화하는 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이 파피루스에 최초로 기록한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내의 이름과 가계까지도 써서 있었으나 가나안 입성 이후에 유대왕국을 건설한 야곱의 후손들이 레아의 자식들의 후손들에

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문자를 빌려 여호와께서 노아가 낳은 셈의 후손에게 행한 일을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날 성경 창세기의 원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최초로 기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출애굽 때에 요셉의 시체를 이장하기 위해 만든 피라미드 석실에 두고 요셉과 함께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12부나 베껴서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에게 각각 한 부씩에 배부하여 그 부족장들로 하여금 주야로 통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젤라

의해서 여성들의 인식사항이 고의로 폄하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창세기 4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야곱의 장자 단에 의해서 최초로 집필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가필된 것입니다.